



오도승으로 보는 한국禪

무산스님

영파선사 '佛鐘聲'

선사의 법명은 성규(聖圭), 법자는 희은(希隱). 법호는 영파(影波). 속성은 전씨(全氏)이다. 선사의 어머니께서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는데 꿈에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품안으로 날아드는 꿈을 꾸고 선사를 잉태하였으며 영조4년(1782)에 선사는 태어났다.

10세 때에는 구류(九流 : 중국 한나라 때에 학문을 아홉 가지로 나누었다. 유가(儒家), 도가(道家), 음양가(陰陽家), 법가(法家), 명가(名家), 묵가(墨家), 잡가(雜家), 농가(農家)의 총칭)의 학문에 통달하였으며, 글씨를 잘 써서 당대 최고의 서예학자 이원고의 문하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였다. 또한 글씨는 힘이 넘쳤다. 15세에 청량암에서 책을 읽다가 공양할 때 여러 스님들이 절을 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오묘한 느낌을 받아 출가할 뜻을 굳혔다. 이후 4년이 지난 뒤 집을 떠나 용천사로 들어가 환승장로에게 축발하였다. 이날 밤 선사의 꿈에 자라가사를 수

부터 선사의 <화엄경>에 대한 공부에 본격화되었다. 선사는 <화엄경>의 깊고 오묘한 이치를 궁구(窮求)하는 데에 30년의 세월을 하루같이 변함없이 공부에만 전념하였다. <화엄경>을 궁구한 지 30년 만에 끝을 맺고 함월 화상에게 참예하여 <화엄경>의 종지(宗旨)와 선교(禪敎)의 이치를 물어 수참하였다. 웅맹정진 중 가을밤에 가람의 종소리를 듣고 확실히 대오(廣大)하였다.

불종성(佛鐘聲 : 종소리에서 나오는 부처님의 소리(法音))

七日關中亦有言(칠일관중역유언) 威音雷震乾坤(위음뢰진건곤) 欲聆無說傳千古(욕聆無說傳千古) 秋夜寒鐘掛寺門(추야한종掛寺門) (주야한종掛寺門)

7일 동안 관중에서 부처님의 법음소리 들었네. 위엄스런 우레소리 천지를 진동했다. 말없이 말한 천고의 진리를 알고 싶었는데.

"천고의 진리 알고싶었는데 가을밤 찬 종소리 절문에"

한 노스님 한 분이 섬돌 앞에 서서 경쇠를 울리며 선사를 향해 세 번 절을 하는 꿈을 꾸었다. 선사는 전국의 제방을 운유(雲遊)하면서 해봉(海峰), 연암(燕巖), 용파(龍坡), 영허(影虛) 등 당대 최고의 선지식을 찾아다니며 가르침을 받아 정진하였다. 하루는 문득 "부처님의 문하에서 가르침을 청명하려면 깨달음(頓悟)을 우선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이에 선사는 금강대(金剛臺)에 재(齋)를 설치하고 관세음보살의 법력을 기구(祈求 : 기도하여 구한다는 뜻)하였다. 재를 마치는 날 밤 선사는 묘한 꿈을 꾸게 되었다.

가을밤 찬 종소리 절문에 걸렸도다. 선사는 오도 후 함월 선사에게서 의발을 전해 받고 그 법을 이었다. 이 때부터 선사는 조사선(祖師禪), 여래선(如來禪)을 설파하였는데 천지가 진동하였다. 이후 선사의 회상에 부르지도 않았는데도 수좌, 학인, 대중들이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몰려들어 대성황을 이뤘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선사의 운수행각은 계속됐다. 선사는 스승 함월 선사의 의발을 전해 받고 등단설법(登壇說法)을 하시면서 전국을 유수하는 도중 80세 때 꿈에 천국성(天兜星 : 하늘에 계신 개의 별신(星神))이 선사에게 물었다. "공(公)과 달(月), 수(水)와 요(火)가 무엇이나." 이에 선사는 대답했다. "명성은 동국(東國)에 가득하고 영달하여 궁극치 않으며 수명(壽命)은 80에 다섯을 더할 것입니다." 그리고 5년 후 순조12년(1812)에 세수85세 법랍 66세로 은해사(銀海寺)에서 입적하였다. (끝)

경주 해회선원 회주

말법시대엔 '바른 염불' 이 최선

한 수행자가 있었다. 깊은 산 속 바위 위가 그의 집이었다. 비바람도 굶주림도 그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직 수행의 기쁨 속에 살았다. 어느 날 한 벗이 쇠가비드기타를 보내왔다. 너무나 고마운 선물에 기뻐하며 읽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책을 보니 쥐가 표지를 갉아먹었다. 수행자는 그 쥐를 쫓기 위해 고양이를 구했다. 그리고 고양이에게 우유를 먹이기 위해 암소를 구했고, 혼자 돌보기 힘들어 여자를 구하고 그녀를 위해 집까지 지었다. 몇 년이 지나 귀여운 아기가 생겼다. 결국 그 수행자는 더 이상 수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처럼 스스로의 욕망에 의해 여러 장애와 마주하게 되는 것이 인간이다. 그렇지만 그 욕망을 딛고 이상향을 추구하는 것 또한 인간이다. 그렇다면 그 이상향은 어디일까. 정토사상에서는 그곳을 바로 극락세계 즉 정토세계라고 말한다. 이 정토세계는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세계로 수많은 정토행자들이 태어나서 생활하고자 원하는 세계인 동시에 스스로 건설하려고 하는 불교의 세계이다.



가까이서 뵈 큰스님

태 허 스님 (본원종 종정)

경북 예천 연방사에 주석하고 있는 태허 스님은 '나무아미타불' 염불수행으로 정토왕생을 발원하고 있는 몇 안되는 노장 스님 가운데 한 분이다. 1927년 김용사에서 정경원 스님의 위패 상좌로 출가한 태허 스님은 "정토사상을 몰랐으면 부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오랫동안 염불수행을 해왔다. 태허 스님은 90에 가까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벽 4시30분부터 7시까지 신도들과 함께 염불을 한다. 물론 스님에게 수행시간이 따로 없다. 1일 24시간, 1년 365일 생활 속에서 나무아미타불을 화두삼아 정진하고 계신다. 하지만 염불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방편이라고 말한다.

"하늘에서 눈이 계속해서 내릴 때 마당을 아무리 쓸어도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러나 천막을 치고 쓸면 마당을 깨끗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염불을 하는 것은 천막을 치고 수행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지난해 겨울 아홉 스님을 비롯해 절이었을 때 같이 수행하던 몇몇 스님들이 마지막이라며 찾아와 옛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는 말로 화제를 돌린 태허 스님은 "요즘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언교(言交)란 난무하고 행중(行中)은 찾아보기 어렵다. 말법시대에는 아마도 부처님의 가르침인 염불수행이 수승하여 기동입로(可通入路)이다"며 염불수행을 권한다. 부처님께서서는 수행의 시대를 정법·상법·말법 시대로 나뉘는데, 지금이 바로 말법 시대. 이러한 말

법 시대에는 중생들의 근기가 낮기 때문에 이들이 성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행방법이 염불수행이라는 게 태허 스님의 지론이다.

"아미타불 정군은 정토삼부경인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을 근본으로 아미타불의 본원력을 추구하는 공부입니다. 가장 쉬운 공부라 할 수 있지요. 오직 아미타불만 염송하면 되니 누구나 쉽게 들어올 수 있는 큰 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출가수행자에게 참선을 권하는 반면 재가불자들에게는 염불수행을 권하는 까닭도 이 때문이지요."

정토사상 몰랐으면 불제자 되지않았을 것

태허 스님은 지난 89년 정토종인 본원종을 창종해 현재정토의 구원과 불국정토의 실현을 위해 염불지도와 수행을 하고 있다. 이는 스님이 조계종, 천태종, 태고종 등 여러 종단의 소임을 맡으면서 내린 결론이다. 불교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 이 시대에, 중생을 가장 바르게 교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염불수행이라고 깨달았다는 것이다. 본원종 총무원장 대화 스님은 "여러 종단에서 중책을 맡으면서 현대에 맞는 불교가 무엇인가를 늘 고민해 오셨다. 그리고 중생들



태허 스님은 특유의 '나무아미타불'을 비롯해 삼국유사 등에 실려있는 정토관련 계송을 쓰시며 정진하신다.

의 근기에 맞는 교법은 보는 불교, 즉 정토 불교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본원종을 창종하셨다"며 "지금도 불교를 이 시대의 중생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유익한 종교로 만들기 위해 정진하고 교법을 펴는 스님의 모습은 중도들의 사표가 되고 있다"고 말한다. 염불수행은 참 나로 깨어나는 실천적인 삶의 운동이라고 말하는 태허 스님. 이런

지혜 깨달음을 증득하는 타력적인 방법이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수행에 있어 수시로 선지식들의 지도를 받을 수 없는 재가 불자들이 아미타불의 본원력에 의지해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정토라는 진리의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천히 맞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크게 자력문(自力門)과 타력문(他力門)으로 나눌 수 있는데, 출가 수행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깨달은 자에 의한 타력이 더 효과적이란 것이다. 타력문은 자력문처럼 이해를 근본적인 즐거움으로 하지 않고, 믿음(信)이 중심을 이루기 때문이다. 이러한 타력문의 가르침 가운데 아미타불과 그의 정토인 극락세계에 대한 신앙이 크게 발전하여 불교 가운데 세력을 차지하는 하나의 유파를 형성하였다. 이를 정토교라고 한다.

불교의 신행에 있어 정토사상이 가장 수승하다는 스님은 염불 수행자들은 무엇보다 염불수행의 의의를 잘 알아야 올바른 수행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아미타불은 무량수불 무량광불 혹은 감로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아득한 과거세에 법장 비구의 몸으로 있을 때 시방

참선교육

참선은 아무나 하나 - 1/2

시간복, 건강복, 재복 등 새가지를 갖춘 후에 대신심, 대본심, 대의정이 받쳐주어야 하도일념으로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으면서도 명분한 참선교육 본 교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권** 참선의 목적(참선의 정의, 참선의 역사), 종류(범부선, 의도선, 소승선, 대승선, 직상승선), 자세(가체의 종류, 참선 경우의 운동, 오묘하는 법, 참선 시 세부적인 요령), 참선과 음식
- 2권** 좌두의 중요성, 좌두의 정의, 좌두 잡구법, 좌두의 수태와 취태, 좌두의 단계, 참선과 법로, 선법론 의식, 법거량 법도, 사빈주, 동념즉지 평념즉지, 임계의 법로, 선문답하는 법, 선사 법문, 조사경맥, 깨미있는 참선특강(참선은 아무나 하나, 핑계없는 무덤은 없다, 참선과 주파수 등)
- 3권** 선사 백문백답

기존에 나와 있는 禪 서적과 완전히 다른 조계종 수선회 참선교육 교재 1, 2, 3권이 3월에 출판됩니다. 먼저 인쇄해두고 판매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는 교재가 때문에 꼭 필요한 분에게만 보급하기 위하여 300질 한정판으로 제작하오니 구입에 뜻이 있는 분은 미리 송금한 후 전화주시면 3월에 발송해드리겠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대량 제작 후 불교서적에서도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격 1권(3권) 3만원(국민은행 023-01-0565-179 도서출판)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19 전화 732-5960, 736-4339

※ 56기 참선교육 : 2002년 3월 12일(화) ~ 4월 9일(화) - 5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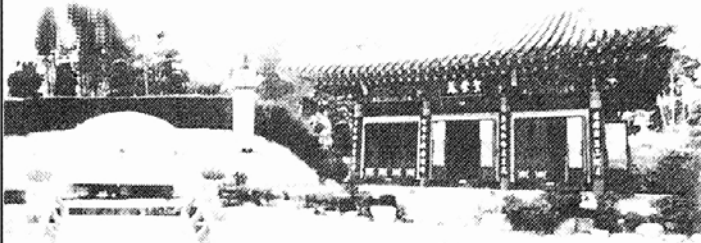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修禪會

정월방생 및 삼사순례 안내

삼보전에 귀의 합니다. 각 사람 대덕 큰 스님께 인사 올립니다.

본 성모암은 진묵대사님께서 효행을 실현한 사찰로서 성모님 묘소와 더불어 조사님의 영정을 봉안한 도량으로 가까이에는 진묵대사께서 육신 방생의 유래가 있는 100만평의 능지 저수지가 자리한 해동의 최고 방생지이며 방생과 더불어 금산사, 선운사, 내소사, 개암사를 연결하는 삼사순례의 적격지입니다.

조사님의 혼이 머무는 본 도량에 왕림 하시어 일체 서원을 이루시길 사부대중과 더불어 발원합니다.



오시는 길

호남고속도로 전주IC에서 군산방면 - 대야김문소에서 김제방면으로 10분 - 성모암 서해안 고속도로 동군산IC. 서김제IC에서 5분거리

점심공양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중무소 ☎ (063)544-0416 (사전에 펴히 전화 접수바랍니다.)

전북 김제시 만경읍 화포리 388번지 불거촌

성모암 대중일통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몸속의 독을 해독시켜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 우리 몸속의 환경호르몬(독소)의 축적은 칼보다 더 무서운 인간의 공포로 다가오며 생명을 단축시킨다. -

- 간 질환** 간염, 간경변, 지방간 등 간기능 저하 및 급만성 간질환
- 급만성위장병** 급제 위장 장애는 그때마다 복통으로 치유되고, 만성은 1일 3회 정기적 3~12개월이던 신효한 효력 있음.
- 부인 병** 월경불통, 월경불순 2~5주 이상으로 치유
- 출혈** 협치질, 비출혈은 3~5일 내외로 중지되며 1~3개월이던 원인적 치유됨
- 만성변비** 투약을 조절하여 복용하지만(중합병원 임상 99%) 매우 심한 환자는 1회 3~15캡슐
- 알콜중독** 2회 복용으로 특효. 술로 인한 제반 증상이 치료, 또는 호전됩니다.
- 약물중독** 급성약물중독자에 1~2주 복용시 제반상의 치료 및 후유증을 해소시켜 준다.
- 마약중독** 경미한 중독자(1~2년) 24시간 OK, 경중한 중독자(2~5년 이내) 48시간 OK, 5년이상 중독자 72~144시간 OK
- 식중독** 식중독 발생 30분 이내에 복용하면 99% 치유되며 24시간이 경과하면 80%까지 저하됨.
- 농약중독** 쥐약에 중독된 개가 죽어갈 때 40캡슐 투약하면 15분이면 소생함.
- 연탄가스중독** 중독시 40캡슐을 물에 혼합하여 복용 후 15분이면 회생하고 후유증 없음.



우리 몸의 독소가 만병의 근원

기적의 미라보타 플러스

만병의 근원인 우리 몸의 독소제거는 미라보타 플러스로! 특히, 술로 인한 간질환에 자세한 내용은 상담바랍니다.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205 미라보타 플러스